

대한항공 한선수, 남자배구 MVP 선정

“최종 목표, 4연속 통합 우승”

도드람 2022~2023 V-리그 시상식 ‘배구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

프로배구 남자부 최우수 선수(MVP)로 뽑힌 한선수(대한항공)가 4연속 통합 우승을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한선수는 10일 오후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시상식에서 남자부 정규리그 MVP로 선정된 후 “제 마지막 목표는 4연속 통합 우승”이라며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매 시즌이 힘들다. 다시 몸을 만들고 도전하는 게 한 시즌이 지날수록 더 힘들다. 면서도 하루 하루 배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배구를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22~2023 V-리그 시상식에서 대한항공 한선수가 남자부 정규리그 MVP 수상소감을 말하고 있다.

한선수는 42세까지 선수 생활을하겠다는 목표를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2년이든 5년이든 될 수 있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세트의 중요성에 대해 “세터가 공을 거처야 하는 중간 역할이

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터가 더 중요해지면 리시브가 안 좋은 것을 똑같이 정확하게 토스해야 한다”며 “공이 안 좋은 것을 토스하는 게 세터의 위치라고 생각한다. 제가 이번 시즌에 조금 잘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선수는 국가대표팀 소집에 관해서는 “제가 필요하다면 언제나 필요의향이 있다. 제 몸이 다할 때까지”라며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무릎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아서 최대한 도와주려 가고는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세터들에 관해서는 “젊은 세터들이 다 좋다. 좋은 방향으로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야 한다”며 “저는 좋은 세터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저보다 좋은 세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패라는 생각을 없애고 과정으로 인한 성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두드렸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박지성 전북현대 테크니컬 디렉터(사진 오른쪽)는 지난 8일 아인트호벤 구단을 방문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소년 육성 노하우 배운다

K리그1 전북현대, 네덜란드 명문 아인트호벤과 파트너십 박지성 테크니컬 디렉터 “PSV 유스 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가 네덜란드 명문 구단 PSV 아인트호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지성 전북 테크니컬 디렉터는 지난 8일 아인트호벤 구단을 방문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아인트호벤 마르셀 브란츠 단장과 2002 한일월드컵 4강 영웅인 거스 하딩크 감독도 참석했다. 이번 파트너십은 과거 아인트호벤에서 활약한 박지성 디렉터의 추천으로 지난 2월 초부터 추진됐다. 전북 구단은 아인트호벤의 유소년 육성 시스템 노하우를 배울 예정이다. 에르네스트 파베르 아인트호벤 유소년팀장은 “가까운 시간 내에 PSV의 전문팀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며 “전북 유소년팀을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조언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디렉터는 “PSV의 유스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양 구단이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우길 좋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배구여제 김연경 ‘통합 우승 가능팀 선택 노력’

은퇴 의사 접어

배구여제 김연경(흥국생명)이 은퇴 의사를 접었다. 김연경은 통합 우승이 가능한 팀으로 이적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김연경은 10일 도드람 2022~2023 V-리그 시상식에서 여자부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뒤 인터뷰에서 “현재 선수로 좀 더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소속 구단과 협상 중”이라며 “다른 구단과도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은퇴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아쉽고 안타깝고 했고 가족들도 그랬다”며 “제가 부상이 있든지 하면 고려해야 하는데 아직은 관촬기도 하고 몸 컨디션이나 퍼포먼스도 아직 괜찮다고 느꼈다. 그런 것을 듣다 보니 여러 생각을 하다가 현역 연장하는 쪽으로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연경은 “올 시즌 통합 우승을 놓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22~2023 V-리그 시상식에서 흥국생명 김연경이 여자부 정규리그 MVP를 수상하고 기뻐하고 있다.

쳐서 우승을 향한 갈망이 더 커졌다”며 “이제는 우승할 수 있는, 통합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으로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규리그 우승을 하고 나니까 챔피언 욕심이 생기더라. 2계으로 앞섰고 그러다가 놓쳐서 그런지 타격이 많이 온다. 통합 우승이 얼마나 큰지 느낀 것 같다”며 “잘하고 못하고 떠나 운도 따라야 통합 우승이 가능하다. 절실함을 느끼면서 통합 우승에 도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절실한 마음이 생겼다”고 밝혔다. 김연경은 구단 선택 기준에 관해서는 “팀이 원하는 비전이나 어떤 생각, 어떤 배구를 원하는지도 중요하다. 영입도 중요하다”며 “샐러리캡이 있어서 그 안에서 선수를 영입해야 해서 제한적인 게 많다. 어떻게 구단들이 운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당연히 고려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진안서 ‘무진장·임실 3쿠션 당구대회’ 성료

지난 9일 진안군 진안읍 청룡 해피, 스포츠 당구장에서 열린 2023년 무진장·임실 3쿠션 당구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진안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진안군 당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진안, 무주, 장수, 임실 4개군 인접 지역 당구호들 110여명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뽐내며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경기 결과로는 박성일(무주군) 우승, 양승민(장수군) 준우승, 무주군의 김용덕, 강석봉이 공동 3위를, 박신용(무주군)이 최고연타 기록으로 하이런상을 차지했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대회 간에 관광지와 음식점을 방문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이로 인한 진안군 대외적 이미지가 제고됐다고 평가다. /진안=우태만기자

김제시, 도민체전 공개행사 사전 보고회

개폐막식·성화봉송 등 프로그램 의견 제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0일 김제시청 2층 상황실에서 ‘제80회 전북도민(장애인)체육대회 개·폐막식 등 공개행사 사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성주 김제시장 주재로 열린 보고회는 김제시 간부공무원들과 주관대행사(NTV)전주방송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올해 김제에서 열리는 제80회 전북도민(장애인)체육대회 개·폐막식 등 공개행사에 대한 보고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주관대행사가 공개행사 연출(안)보고를 하고 이에 대해 간부공무원들의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개·폐막식, 환영만찬 성화봉송 등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공동



의 목표인 성공적인 체육대회의 개최를 위해 나아가자며 입을 모았다. 정성주 시장은 “10년 만에 김제에서 열리는 전북도민체육대회는 180만 도민의 화합의 장이며, 13개 시·군을 초대하여 전북권 4대 도시로 응모하는 김제의 위상을 알리는 기회”의 장”이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고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르겠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 대회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태 기자

선운산농협의 웰빙지향 정직한 농민의 마음 브랜드입니다.

■ 본점: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읍성길 34  
- 사무실: 0631562-9604  
- 팩: 0631562-9601  
- 아나로마트: 0631562-9602  
- 영농자재판매장: 0631562-9603  
- 농기계서비스센터: 0631564-9605

■ 아산지점: 아산면 녹두로 793  
- 사무실: 562-5007  
- 사무실(야간): 562-5126  
- 팩: 561-0955  
- 아나로마트: 562-5166  
- 영농자재판매장: 564-9772

■ 공음지점: 공음면 공음길 55  
- 사무실: 562-7888  
- 팩: 562-7890  
- 팩: 564-6465  
- 아나로마트: 562-7889  
- 영농자재판매장: 562-5556

■ 웰파크지점: 563-7255  
- 팩: 563-7256  
- 팩: 561-3443  
- 팩: 561-4257  
- 팩: 564-5008  
- 팩: 564-5078

■ 농산물유통센터: 562-9644  
- 팩: 562-9654  
- 팩: 562-9600  
- 팩: 562-9609

최고의품질, 친절한 서비스 / 선운산농협 직접 운영

선운산농협동조합

■ 상임이사: 장봉남 ■ 사외이사: 조규표  
■ 비상임이사: 류채상 김용자 김완식 나삼주 서금자 최형곤 김범진 박수정 라종이 김대열 이종면 김대진  
■ 비상임감사: 이종호 김대환

■ 조합장: 김기욱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

고창지역에서만 자란 복분자 생과에 선운산농협의 정성을 더했습니다.

1544. 1589  
복분자 1번지 선운산농협  
http://www.berrywell.co.kr